

“불교환경운동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민·단체·네티즌 ‘효율성 위한 변화’ 목소리 확산

지을 스님이 100일 단식을 회향하고 천성산 환경영향조사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교환경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생명’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부터 환경운동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논의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불교환경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목된다. 네티즌과 시민들은 불교환경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대응을 극복해야 한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불교환경운동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정토회(대표 유수)가 펼친 ‘빈그릇 운동’은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열띤 호응을 얻었다. 2004년 9월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운동은 전국의 거리와 학교, 각종 행사장은 물론 이웃 종교에까지 확산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불교의 전통생활문화인 발우공양에서 출발한 것이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말 그대로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환경적’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경우다.

삼보일배를 진행한 수경 스님 역시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행’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뜻생명을 살리겠다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당시 여론이었다. 삼보일배는 이후 각종 집회와 행사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하나의 ‘코드’가 됐다.

지을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운동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한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운동 또한 우리 사회에 개발만능주의와 환경영향평가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중요한 계기였다.

말양대 이병인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과 생활 자체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제시하고 모범을 보인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불교환경운동이 변화하야 할 부분은 더 많다. 사찰의 생활양식부터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것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최근 불교계 인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환경운동의 순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문제다. 최근 수행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사찰 중에는 보상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A사찰은 몇 억을 받았다”, “B사찰은 몇 억을 요구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터무니없는 보상요구에 관한 기관들이 허를 내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다.

불자와 사찰이 생활에서부터 환경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쓰레기를 줄이고 경내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불자 가정과 사찰에서부터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사회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 제3의 ‘빈그릇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불사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해인사 불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불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제는 꼭 필요한 불사는 지역 주민과 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불교계 내부 문제를 개선하는 것

과 함께 대형 개발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산과 천성산 문제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다는 인상을 심어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문가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지을 스님이 ‘도통농 소승’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학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했던 것이나 천성산 환경영향조사를 함께 진행할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은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사전에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불자와 사찰, 지자체,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망라한 ‘불교환경 의제21’은 불교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불교계는 ‘지을 스님 단식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금이야말로 불교환경운동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재점검과 담론형성이 필요한 때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새내기들아, 법당으로 오렴~”

새 학기가 시작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새내기 모집을 위한 총불교학생회의 홍보활동이 한창이다.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법당에서 새롭게 인연을 맺을 새내기를 기다리는 광기훈 회장(사진 가운데)과 회원들은 3월 4일 열리는 마을으로 학생회관 바깥벽에 회원모집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사진·고영배기자

선원 ‘공동청규’ 제정된다

전국선원수좌회, 추진위 구성 8월에 시안

선원의 수행풍토 진작을 위한 ‘전국선원 공동청규’가 제정된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현산 인각, 이하 수좌회는 2월 28일 합천 해인사 원당암에서 선원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수좌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전국선원별 해제비 조정, 차담 문화 등 관련 청규내용이 선원마다 달라 수행풍토 진작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모으고, 오는 8월 24일까지 구체적인 공동청규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좌회는 이를 위해 청규분과위원장에 대한 스님(기본선원 선감)을 선임하고, 인각(봉은사 선원장) 해국

(석종사 선원장) 지한(조계종 기본선원장) 정찬(마곡사 선원장) 의정(상원사 선원장) 정목(곡지사 선원장) 지현(송광사 구암) 스님 등 총 7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수좌회는 ‘영축총림 방장추대’와 관련, 이날 선원위원들은 “성원미달로 방장추대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추대 자체는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총림법에 의거한 방장추대를 촉구해온 ‘영축총림 방장추대 대책위’를 유지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대책위 인원을 보강하는 등 기본인장을 고수,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수좌회는 ‘영축총림 방장추대’와 관련, 이날 선원위원들은 “성원미달로 방장추대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추대 자체는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총림법에 의거한 방장추대를 촉구해온 ‘영축총림 방장추대 대책위’를 유지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대책위 인원을 보강하는 등 기본인장을 고수,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해인사=김철우 기자

간화선?... “아, 그렇구나”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4월에 출간

조계종 ‘간화선수행지침서 편찬위원회(위원장 혜국)’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평)는 3월 8일 제9차 편집위원회를 끝으로, 일부 오탈자 등을 점검한 뒤 간화선수행서를 위한 지침서를 오는 4월 중순 발간한다.

당대 선지식들의 감수를 통해 종단 최초로 발간되는 간화선수행서를 위한 지침서는 2002년 11월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회가 결성된 후 2년 5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 책은 간화선수행을 시작하는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간화선의 기초, 실천방법, 깨달음과 그 이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턱도 산문형식의 서술로, 초심자들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특히 간화선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초심자들에게와 재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학연구소는 지침서를 각종 교육기관과 연수교육시 강의교안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선수행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간경, 염불, 주력, 절 수행지침서 등을 추가로 간행해 종단의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편찬위원회 위원들은 2월 28일 해인사에서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 지침서의 정식발간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최종 윤문본을 점검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간화선수행지침서는 종단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지침서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좌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용수 기자

수행지침서 목차 및 요약 4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실천대법회’
 3월 12일 오후 2시 범어사 / 법주: 혜국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할’

시내에 나가보면 병원과 약방이 즐비합니다

이러도 자연파괴 환경오염 계속하실 겁니까?

대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2005 졸업·입학 기념

아이벳의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el)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아이벳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로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개만 특별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금(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벳(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벳’

특별보금기 아이벳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벳(484,000원)

구입문의: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벳(I-BUD)사업단 전 화: 02)735-3034, 737-8881 / 팩스: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